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영암군 최종 선정

국비 등 350억원 투입... 풍부한 농업부산물 활용 새로운 수소 생산 모델 제시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제4기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영암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 모델을 구축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수소경제 육성 사업이다.

이번 영암군 수소도시 선정은 지난 1기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호남권에서 2개 이상 선정된 지자체는 전남이 최초다. 이로써 전남은 수소 산업 육성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영암 수소도시는 3년간 국비 115억 원을 포함한 총 350억 원을 2028년까지 영암 삼포지구에서 농업부산물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부산물 기반 수소 생산은 유럽·미국 등 50여 개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국내에서는 영암에서 처음으로 상용



화를 추진한다. 양겨·뽕짚·무화과 줄기 등 전남의 풍부한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겨·뽕짚 등 농업부산물을 활용해 연간 730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1.7km 수소 배관을 구축하며 인근 아파트와 삼포지구 숙박시설에 연료전

지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삼포지구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용차 7대를 수소차 전환과 수소버스 2대 도입을 추진해 교통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을 확대한다.

조선업이 집적된 대불국가산단에 용접용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지역 특화형 사업을 병행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이용·활용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는 맞춤형 통합 안전 시스템을 구축, 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수소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전남도는 2026년 3월까지 수소 도시 종합계획과 세부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수소선도 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장은 “전남도는 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정책에 발맞춰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에도 수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미래 청정수소 산업을 전남이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촉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철저한 사업 관리로 차질 없이 추진해 서부권 청정수소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충장로서 즐기는 ‘홍콩골목’ 10월 2일 개장

선술집·포차·위스키바·샤브샤브 전문점 등 입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충장상권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홍콩 골목’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장로안길 5-2 일원에서 진행되는 개장식 타이틀은 ‘기연치·낭만’으로 전라도 방언 ‘기연치(=기필코)’에서 착안했다. 여권과 비행기표가 없어도 충장로에서 홍콩의 낭만을 기필코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충장로 한복판에서 새로운 감성을 선사한다.

앞서 동구는 장기간 공사로 남아 있던 충장로 일원 점포 구간을 리모델링해 선술집과 포차, 위스키 바, 샤브샤브 전문점 등 다양한 점포로 채운 ‘홍콩 골목’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왔다. 이를 통해 충장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 시켰다.

특히 충장로에서도 홍콩의 낭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내온사인과 홍콩풍 간판, 야외 테이블, 홍콩 영화 감성의 음악과 향기 연출을 통해 단순한 특화 거리를 넘어 ‘오감(五感)’을 만족시키는 체험 공간으로 꾸몄다. 임택 동구청장은 “‘홍콩 골목’은 단순한 테마 거리를 넘어 지역 상권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임대료 인하와 상권 이미지 개선이 현실화 되면서 인근 임대문의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골목상권 창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장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골목’ 개장식은 형식적인 절차 대신 시민들이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무대나 사회자 없이 마칭밴드와 거리공연이 이어지며, 현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 전문 사진작가의 홍콩풍 촬영 서비스, SNS 참여 이벤트, 팸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철수 기자

광주 남구 ‘연휴 첫날, ‘고싸움놀이’ 구경오세요’

3일 칠석동서 도심 예술축제... 전통놀이 체험 등 풍성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래)는 한가위 연휴 첫날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공원에서 고싸움놀이 예술축제를 개최한다.

남구는 30일 “한가위를 맞아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보존 필요성 및 가치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3일 국가무형문화재 고싸움놀이 시연과 지역 전통문화를 연계한 예술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공원 일원에서는 이날 고싸움놀이 시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체험 마당과 놀이마당 등이 열린다. 먼저 체험 마당과 놀이마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펼쳐진다.

줄패장 의복 체험과 그림책 만들기, 연 만들기, 줄팽이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굴렁쇠와 활쏘기, 제기차기, 투호를 던지며 신명 난 놀이도 온종일 즐길 수 있다. 고싸움놀이 공연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고싸움놀이 보존회 회원들은 30분여간 진취적이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고싸움놀이의 진면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연이 끝난 뒤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줄다리기 대회를 비롯해 한가위 음식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남구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을 맞아 광



주 시민과 고향을 찾은 향우들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특별 예술축제를 마련했다”면서 “우리의 고유 전통

문화를 더 신명나게 즐기면서 한가위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북구, ‘전국 자치구 유일’ ‘13년 연속’ 일자리 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지난해 일자리 공시제 및 우수사업 추진 성과 ‘탁월’ 평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1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평가 제도이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을 종합 점검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등 2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73개(공시제 58개, 우수사업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고령의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호평받았다.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전문가로 양성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방치된 상가 공실을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해 노후된 시설

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사업과 실효성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 지난해 일자리 목표 16,770개를 114% 초과 달성한 19,205개의 일자리를 창출 성과를 얻은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북구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 두 분야에서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아 전국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13년 연속 일자리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1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1,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부지런히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9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5 대한민국 일자리 포럼’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광주 북구 일자리 정책 사례’를 발표하는 등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송현근 기자

서구, 추석 연휴 ‘천원국시’로 나눔 실천

한 식사와 생활지원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인기를 전할 예정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연휴에도 천원국시 매장을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천원국시’는 서구의 대표 나눔 브랜드로 현재 10개 매장에서 하루 100그릇씩

총 1000그릇의 국수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지역 나눔 문화 확산까지 이뤄내며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매장별로 어르신, 임산부, 취약계층 등 지역 특성에 맞춰 맞춤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추석 연휴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한끼’ 지원에 나선다.

서구는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농성2동과 금호1동 천원국시 매장에서 ‘천원국시’를 무료로 제공한다. 매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을 열고, 매장별로 하루 100그릇씩 총 600그릇의 국수를 나눈다. 매장 내 나눔냉장고도 함께 열어 식사 대용 즉석식품과 식자재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해당 지역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은 곳으로 명절 기간 따뜻

